

렉서스 첫 전기차 ‘RZ’·완전 변경 5세대 ‘RX’ 사전 계약

첫 전기차 ‘RZ 450e’

수프림·렉서리 등 2개 트림

‘오토 케어 리스’로만 판매

렉서리 SUV 5세대 ‘RX’

하이브리드 ‘RX 350h’ 등

안락하면서 여유로운 공간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BEV) 전용 모델 ‘RZ’가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모델이자,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렉서스의 5세대 ‘RX’도 사전 계약에 나선다.

렉서스코리아는 렉서스다운 전동화를 위한 ‘넥스트 챕터’(Next Chapter)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음달 21일 국내에 공식 출시하는 렉서스 최초의 전기차 전용 모델 ‘RZ’와 5세대 ‘RX’ 모델에 대한 사전 계약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렉서스 최초 전용 전기차-더 올 뉴 일렉트릭 렉서스 ‘RZ 450e’= ‘RZ 450e’는 렉서스 최초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TNGA를 적용했다. 전기차에 최적화된 패키징과 높은 차체 강성을 갖춰 렉서스만의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로운 디자인 방향인 렉서스 ‘스핀들 보디’(Spindle Body)를 바탕으로 공기 역학적 디자인과 역동적인 비율을 갖췄다는 평가다. 인테리어는 ‘타즈나’(Tazuna) 콘셉트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해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



렉서스 첫 전기차 전용 모델 ‘더 올 뉴 일렉트릭 렉서스 RZ 450e’ (왼쪽)와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5세대 ‘뉴 제너레이션 RX 450h+’.



〈렉서스 제공〉

간으로 설계됐다. 렉서스 커넥트가 탑재된 1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뛰어난 개방감을 자랑하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및 렉서스 최초의 레디언트 히터가 적용되는 등 운전자 편의성도 높였다.

RZ 450e에는 프런트 및 리어에 새로 개발된 이엑슬(eAxe)이 적용된 다이렉트4(DIRECT4)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BEV 전용 71.4kWh의 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안전한 주행을 위한 예방 안전시스템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Lexus Safety System+)가 탑재됐다.

RZ 450e는 수프림과 렉서리 등 2개의 트림으로 출시되며, 픽업 및 차량 유지 관리 서비스 등이 포

함된 ‘오토 케어 리스’(Auto Care Lease)로만 판매 예정이다.

◇7년 만에 완전변경... ‘뉴 제너레이션 RX’=2006년 한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RX 400h를 선보인 렉서스코리아는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5세대 RX를 공식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RX는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고자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350h’와 렉서스의 두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450h+’, 렉서스 최초의 2.4ℓ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500h F SPORT Performance’ 등 총 3가지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된다.

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RX는 새로운

심리스(Seamless) 타입의 스피들 그릴과 일체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새로운 리어 로고 디자인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타즈나 콘셉트가 반영된 실내는 전자식 버튼 도어 핸들인 ‘이래치(e-Latch)’ 도어와 렉서스 커넥트가 탑재된 1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등 향상된 편의사양과 함께 렉서리 스포츠유틸리티차에 걸맞은 안락하면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RX는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는 주행 성능과 렉서스만의 감성을 제공한다. 2.5ℓ 4기통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RX 350h와 2.5ℓ 4기통 가솔린 엔진과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RX

450h+는 E-Four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또 렉서스 최초의 2.4ℓ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RX 500h F SPORT Performance는 다이렉트4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돼 기존 F SPORT와 차별화된 강력한 드라이빙 성능을 제공한다.

강대환 렉서스코리아 상무는 “RZ와 RX 모델은 렉서스가 ‘넥스트 챕터’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동화 모델로 국내 고객들의 다양한 렉서리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고자 한다”며 “탄소 중립을 위한 ‘렉서스다운 전동화’를 보여주는 두 모델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누팩투어 마운틴 그레이 마그노’



‘마누팩투어 파타고니아 레드’

20분만 모십니다

벤츠 ‘EQA 250 AMG Line 온라인 스페셜’ 한정 판매... ‘마누팩투어 마운틴 그레이 마그노’ 등 2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창립 20주년 온라인 스페셜 5월 모델로 럭셔리 전기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EQA 250 AMG Line 온라인 스페셜’을 20대 한정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EQA 250 AMG Line 온라인 스페셜’은 ‘마누팩투어 마운틴 그레이 마그노’와 ‘마누팩투어 파타고니아 레드’ 등 2종이다. 각각 17대, 3대 한정으로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Mercedes-Benz Store)에서 판매한다.

‘EQA 250 AMG Line’은 효율적이고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최첨단 디지털 기능을 갖춘 도심형 전기차로 꼽힌다.

벤츠코리아는 스포티함을 뽐내는 나파 가죽 소재

의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 스포츠 시트 등이 적용돼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안정맞춤인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온라인 스페셜 모델은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반영한 색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는 ‘마누팩투어 마운틴 그레이 마그노’와 강렬한 붉은 빛이 역동적인 내관과 어우러진 ‘마누팩투어 파타고니아 레드’로 EQA의 매력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전방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가상 주행 라인과 실시간 교통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MBUX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돕는 기능들이 기본 탑재됐다.

이밖에 12개의 스피커로 음향 경험을 극대화하

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360도 카메라가 포함된 주차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공기 청정 패키지 등이 제공돼 편의성도 갖췄다.

‘EQA 250 AMG Line 온라인 스페셜’ 마누팩투어 마운틴 그레이 마그노 모델의 판매가는 7828만원으로, ‘마누팩투어 파타고니아 레드’는 7573만원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한국 진출 20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매월 20일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스페셜 모델을 한정수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포니 쿠페’ 돌아왔다

현대차, 복원모델 공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포니 쿠페’(사진)가 다시 돌아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에서 ‘현대 리유니온’(Hyundai Reunion) 행사를 열고 ‘포니 쿠페 콘셉트’ 복원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 리유니온’은 현대자동차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현대차의 변하지 않는 비전과 방향성을 소개하는 브랜드 플랫폼이다.

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11월 시작한 ‘포니 쿠페 콘셉트’ 복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현대차는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포니 쿠페 콘셉트’를 원형 그대로 복원, 포니 개발을 통해 자동차를 국가의 중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염원했던 정주영 선대회장의 수출보국 정신과 포니 쿠페를 앞세워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했던 당시 임직원들의 열정을 되짚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포니 쿠페 콘셉트 복원 작업은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와 그의 아들인 파브리치오 주지아로(Fabrizio Giugiaro)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포니 쿠페 콘셉트는 현대차 역사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모델이다.

현대차가 첫 독자 생산 모델인 포니와 함께 토리노 모터쇼에서 선보인 포니 쿠페 콘셉트는 쉐기 모양의 노즈와 원형의 헤드램프, 중이접기틀 연상케 하는 기하학적 선으로 공개 당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실내 공간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대시보드가 어느 차에서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시보드와 실내 트림 색상을 분리해 지금 보아도 세련된 감성을 선사하고 있다.

포니 쿠페 콘셉트는 1974년 공개 이후 선진 시장을 타겟으로 한 수출 전략 차종으로 실제로 양산 직전까지 개발이 진행됐으나, 1979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양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도면과 차량이 유실되며 한동안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제네시스 ‘2023 G70·G70 슈팅 브레이크’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는 스포츠 세단 G70의 동력·제동 성능을 개선한 모델 ‘2023 G70·G70 슈팅 브레이크’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G70은 가솔린 2.5 터보와 가솔린 3.3 터보 2개 라인업으로, G70 슈팅 브레이크는 가솔린 2.5 터보 단일 엔진으로 판매된다.

가솔린 2.5 터보 엔진은 기존 2.0 터보 엔진과 비교해 50마력(ps) 이상 향상된 최고출력 304마력(ps), 최대토크 43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이에 따라 고출력의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승차감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한계 주행에 특화된 스포츠 모드 등을 더해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고 제네시스는 설명했다.

또 고성능 브렘보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장착해 제동 성능 역시 개선됐다.

외관에는 기요세 패턴의 신규 제네시스 엠블럼을 적용했다.

18인치 리얼 스틸 그레이 휠, 19인치 다크 그레이 매트 휠 등 새로운 디자인의 휠과 카와블루 등

신규 외장 컬러가 도입됐다.

실내 디자인은 제네시스 고유의 아이덴티티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계승하면서 운전자 중심으로 변모했다.

터치식 공조 디스플레이, 프레임리스 룸미러, 신규 엠블럼과 가죽을 적용한 스티어링 휠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도어-콘솔 가니쉬 패턴과 에어벤트 등에 디자인 디테일을 더했다.

내장 컬러도 옵시디언 블랙·포그 그레이 투톤, 옵시디언 블랙·바닐라 베이지 투톤, 포레스트 블루·바닐라 베이지 투톤 등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앞좌석 통풍시트와 뒷좌석 열선시트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도 높였다.

고성능 항공·컴비 필터, C타입 USB 충전 단자 등의 편의사양과 주행 시 제한 속도 정보를 클러스



터에 표시해주고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를 새롭게 적용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2023 G70·G70 슈팅 브레이크는 가솔린 2.5 터보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해 300마력 이상의 한 차원 높은 동력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며 “완성도 높은 제네시스 엔트리 모델로서 다이내믹하면서 럭셔리한 운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캐스퍼와 함께 축구 응원해요

현대차 ‘인크레더블 풋볼 데이 위드 캐스퍼’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캐스퍼’와 함께하는 축구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국내 20~30대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인크레더블 풋볼 데이 위드 캐스퍼’(Incredible Football Day with CASPER)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축구를 사랑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캐스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캐스퍼 온라인(<https://casper.hyundai.com>)과 현대닷컴(<https://hyundai.com>)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를 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7일이다. 총 40명을 선정할 예정으로, 동반 1인 포함 총 80명이 대상이다.

현대차는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을 대상으로 6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파주 NFC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식사 및 생활, 훈련 공간 체험 ▲축구 레전드와의 토크쇼 ▲축구 레전드와 함께하는 축구 클리닉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페루와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단체 응원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현대차는 행사 당일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캐스퍼 미모유 고객을 대상으로 캐스퍼 시승차를 제공해 3박 4일간 차량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